

# 학문 성취에 밀거름된 ‘雜同散異’

## 동서 고전 섭렵... 평생 두고 疑問符 풀어

金東旭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장·국문학

나는 현재 10,000권의 책을 내 연구실에 소장하고 아직 현역으로 있으니까 책에 대한 편력을 쓰려면 무엇을 써야할지 망설여진다. 책 하나하나가 다 구입할 때마다 거기에는 독서충격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만 해놓고 떠들어보지 않은 것도 많다. 원래 비교문학자의 경우, 대상이 되는 사람의 독서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듯이, 한국학자인 나의 학문적 성취의 그늘에서 무엇이 밀거름이 되었는가를 고백하는 것도 후배들에게는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특수한 경험에 속할 것이니 경험적 차원에서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나에게도 소년·청년시대가 있었으니, 일반적인 독서경향의 시대는 있었다. 그것은 아득한 50년 전의 이야기이므로 오늘의 독서경향과는 많이 다를 것은 자명할 일이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古典의 영역이다. 고전은 인간의 예지로서 천년 이천년의 문제이니 언제나 새롭게 溫古知新으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독서경향을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옛 선비들의 讀書百遍

나에게는 조선 말경에 扶餘에 살았던 어느 선비의 일생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표제는 「勿軒漫錄」이란 책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과거를 26번이나 보았으나 모두 실패하고만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小科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으니 아들과 함께 과거를 본 대목도 있다. 또 다른 기록은 大科에 합격하려고 23년 동안 성균관에 머문 尹穉의 「無名子集」이다. 이는 내가 종로5가의 破紙가게에서 사들여 소장하고 있다가 그중에 실려 있는 「洋中雜詠」을 자료로 하여 「李朝學校風俗考」를 집필한 바 있고, 이것은 다시 나의 국민학교 때의 은사였던 金鍾國교수(성균관대)가 간수한 책과 그뒤 다시 수소문하여 후손인

尹炳熙교수(연세대)의 家藏本과 합쳐 「無名子集」이라 합본 영인한 바가 있어, 조선말기의 成均館史의 중요한 문헌이 되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반중잡영」에는

과거의 「太學志」에도 없는 생생한 성균관의 생활기록이 있어, 내가 이를 종로 파지가게에서 사들이지 않았더라면 망각의 피안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소중한 기록이다. 물론 내 책은 후손 집에 기증하였다.

이들 「물헌만록」이나 「반중잡영」에 실려 있는 사실들은 과거에 선비들이 과거시험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도 실의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초치일관하며 고심참담하였는가를 일깨워주는 경험의 기록이다. 다만 오늘의 낙방생과 다른 점은, 그들에게는 鄉邸가 있어 농사를 지으면서 몇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보려고 도보로 서울을 오르내린 불굴의 여유있는 생활이었다는 점이다. 물론은 50여세까지 진사시험을 보러 다니고, 무명자는 23년 동안 성균관 부근에서 대과를 보려고 버틴 그런 끈질김이 오늘의 학생들에게는 없는 것이 아쉽다면 아쉽다. 그러나 오늘은 산업사회이니까 그때와 사정이 다르고, 교과목도 다르니 비교는 되지 않는다.

이 두 책 중 「물헌만록」에는 당시의 독서기록이 있고, 「반중잡영」에는 대학생활의 기록이 있다. 「물헌만록」에는 당시의 중국의 고전과목을 하나하나 千讀·5百讀하면서 되풀이 되풀이 일생동안 읽은 독서의 기록이 있다.

애초의 천자문에서 시작하여 通鑑이나 史略, 唐音 등의 小學書를 10세 이내에 다 마친 뒤 10세 이후부터는 사서, 삼경, 예기, 近思錄 등을 20세 안에 다 마치고, 그 뒤의 일생은 이를 되풀이 복습한 기록이다. 15~6살에 읽은 「資治通鑑綱目」은 대략 세어보니 200만자가 넘었다. 이것을 1년 반 정도 걸려 읽어, 이를 다 읽으면 떡을 찌놓고 잔치를 하였다는 기록도 우리 모두 한번 음미해볼 대목이다. 그것은 정치, 법률, 경제를 배우지 않아도 이를 역사 속에서 배워, 나중에 牧民官으로 나가더라도 이런 역사 속에서 거울[鑑]을 찾아 처세, 재판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대학에 있어서의 전공도 그 근원은 韓愈의 「師說」에 나오는 바와 같이 「術業有專攻」으로, 일종의 기술직이지 선비의 학업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대학교수들도 하다못해 국문학 하나만 하더라도 나는 鄉歌다, 나는 歌詞다 하여 전공을 잡고, 그 나머지 것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니 일종의 기술직으로 타락하고 만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역사 공부를 소홀히 하는 데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조선조의 학습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역사 공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학습방법을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의 시대를 우리는 고전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때의 공부방향은 철저하게 暗誦주의였고, 모든 독서가 ‘물헌’이나 ‘무명자’나 그밖의 선비에 있어서도 千讀암송주의였다는 것을 위의 책에서 엿볼 수 있다. 놀랍게도 高峯 奇大升은 이 200만자에 이르는 강목을 암송하였다니 우리들을 놀라게 한다.

나의 독서경험에 있어서는 수험시대의 독서도 한 책을 다섯번 읽은 것이 고작이니 부끄럽기 한량없다. 그래서 나는 학교 강의에 들어가면 교과서를 지정해 주고 한 학기 동안에 세번 읽으라 한다. 물론 이것도 성적으로 평가한다. 기말에 이를 정리해 보면 두번 읽은 사람이 고작이다. 그러니 古人の 500분의 1의 노력을 가지고 전공을 삼고 있으니 그 공부가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초가 없는 것이다. 이 기초가 부실한 것을 砌上樓閣이라 한다. 그래서 어느 한 귀둥이에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 「춘향전」에 바친 10여년

나는 나의 학문을 「雜同散異」라고 한다. 나의 성장기가 고전시대가 아니고 일제하의 과도기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고전을 우리말이 아닌 日語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重譯의 시대이기도 하다. 국민학교 때부터 세계문학을 탐독하였지만 그것도 일어판으로부터의 수용이다. 20세 전에 중국의 사서삼경을 다 읽었지만, 이것도 서당에서 읽은 것이 아니고 독학으로 「四書諺解」「三經諺解」와 일부는 일어판으로 읽었다. 16세부터 20세까지 와세다대학의 「문학강의록」의 충실한 독자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문학과 중국의 고전, 일본 고전에 대해 대학 정도의

- 옛 사람들은 책 한권을 백번, 천번
- 되풀이 읽고 암송하기까지 했으며,
- 정치·법률·경제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 이를 역사 속에서 배워
- 나중에 牧民官으로 나가더라도
- 역사를 거울로 삼았다.
- 요즘 학자들이 일종의 기술직으로
- 타락하고 만 것은
- 바로 역사공부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 나는 대학에서 實錄을 만나고,
- 이 실록 속에서
- 복식·민속·서지학·고문서를 찾고
- 다시 풍속을 찾았다.
- 학생 때 「춘향전」에서 얻은
- 의문부를 푸는데 10여년이 걸렸고
- 거기에 바친 원고지만도 2만매가 넘는다.
- 학문이란 이렇게 의문부호를
- 푸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교양을 쌓았고, 오늘날 국학을 연구하는 데 충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뒤의 전공은 법과를 택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문학공부를 하였다. 당시의 시류에 따라 발레리, 쇼펜하우어,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등을 탐독했고, 칸트의 철학서를 읽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플라투크 영웅전 등을 통해 10대에 읽은 세계문학전집과 더불어 서구적인 문학서를 섭렵할 수 있었다.

다만 내가 동경에 건너갈 때에 崔鉉培의 「우리말본」과 趙潤濟의 「춘향전」을 가지고 갔다. 도중에 관부연락선에서 걸렸으나 그 特高의 온정(?)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일본 간다(神田)의 여관에 여장을 푸니 또 다시 특고가 들이닥쳐 내 짐을 살살이 뒤졌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나의 민족에 대한 의식은 개화하기 시작하였다. 나의 중앙대학 전문부 시절 도서관에 朴殷植의 「韓國痛史」가 있어, 그것이



한국고전문학을 비롯 服飾史·風俗史 등 광범한 분야에 관심을 보여 온 金東旭 교수의 연구실은 1만여권의 '雜同散異'로 가득차 있다.

한문이었는데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문자가 수단을 넘어 목적의 짝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예라거나 할까? 그때 가지고 갔던 「춘향전」에 독후감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춘향은 왜 이렇게 음녀인가?'라는 대목이 있었다. 나의 해방후의 발자취는 이 의문부를 푸는데 근 10여년을 바친 셈이다.

이렇게 한권의 책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정력을 소비하게 만드는 수가 있고, 또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컬하다. 그 동안 「춘향전」에 바친 원고지의 매수만 하여도 2만매 이상이 된다.

학문이란 이런 의문부호를 푸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의문부를 풀기 위해서 동서고금의 문헌을 섭렵하였다. 독자 중에서도 독서를 하면서 이런 의문부를 소중히 간직하여 자기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다. 물론 나의 그 당시의 의문부는 내가

뒤에 국문학자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닌데, 이것이 적중한 신기한 예에 속할 것이다.

#### 雜學이 낳은 논문 180편

사실 나는 법과를 공부하면서 고시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졸업할 무렵에 학병문제가 일어나고, 나는 이를 거부하고 징용에 가기로 하여 이를 기피하였다. 나중에 당시로서는 '비국민'의 집단인 元山철도공장에 갔다. 그때 나는 공부하던 법률 책을 다 저버리고 중국고전인 사서삼경을 가지고 갔다. 변란기를 겪은 사람은 이렇게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을 때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겠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각인각색의 답이 나올 것이다. 성서를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시집을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정용학도 그룹에는 여러 갈래가 있었다. 아담 스미스의 영문 「國富論」을 가지고 간 사람은 해방 후에 좌익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내 책 속에는 이밖에도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역사책도 있었다. 나는 여기서 틈틈이 이런 책을 읽었다. 독일어나 노어같은 어학공부도 하였다. 이것이 1년8개월 뒤의 해방의 날에 나에게 큰 밑거름이 되었다.

법률 공부를 한 나에게 해방 후에 맡겨진 직업은 중학교의 국어교사였다. 당시 전공으로 국어교사를 할 사람은 전국에서 10명에 불과하였다. 이런 국어교사의 직을 따기 위해서 그 동안에 경주한 노력은 위에 든 독서가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그러면서 일년 남짓한 국어교사의 경력을 갖고 학교내의 사건에 말려 좌천되어간 학교에서 사표를 던지고, 다시 서울대 국문과 2학년에 편입한 것이 오늘의 내 생활이 된 것이다. 여기서 實錄을 만나고, 이 실록 속에서 복식·민속·서지학·고문서를 찾고, 다시 풍속을 찾고, 불란서어에서 비교문학을 찾고, 독일어에서 문예학을 찾고, 중국어에서 戲劇을 찾고, 일본어에서 신화와 무속을

찾고...나의 학문은 '잡동사니'로 변저 나갔다.

그러나 다만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가지 부문에서 창조적인 논문을 180편 쓰는 동안에 많은 의문부를 풀어나갔다.

나의 이러한 논문들이 학자의 상식 속에 융해되어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의 학설은 덧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내가 학자가 되지 않고 창작가가 되었다면 어떠하였을까 상상도 해보지만, 이미 나이를 먹었으니 어찌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런 雜學을 과시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우리 세대로서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젊은 사람에게 항상 타이르는 말이 있다.

博學審問하라!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라! 동서고금을 염두에 두라 등이다.